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경영저널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정론

2012. 9

통권 제38호



특별기획 노블레스 오블리쥬, 그 참된 의미를 찾아서

COVER STORY 김영석 영천시장

Dream Interview 재즈 보컬리스트 박라온

정책Focus 정확한 원가계산은 정책발전의 기본 토대

지역경제 동향분석 대구산업계는 한일협력 봇물

Hot Issue 시·군·구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칭찬합시다 이원식 울진군 문화관광교장



THE 10th YEONGCHEON HERB LONG LIFE & THE 11th FRUIT FESTIVAL

<http://herb.yc.go.kr>

제11회

영천 과일 축제

주최/주관 _ 영천과일축제추진위원회 /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풀격 높은 건강·웰빙 여행! 과일의 고장, 한방특구 영천에서!!

2012. 9. 19 水 ▶ 9. 23 日

개막행사 : 9월 19일, 오후 7시, 영천금호강 강변공원(특설무대)

영천금호강 강변공원 음악분수대, 약전거리, 한약유통단지

축제문의 : 054)339-7246~7248

韓藥

通



영천 제10회 한약 장수 축제



주최/주관 _ 영천한약장수축제추진위원회 / 영천한방산업발전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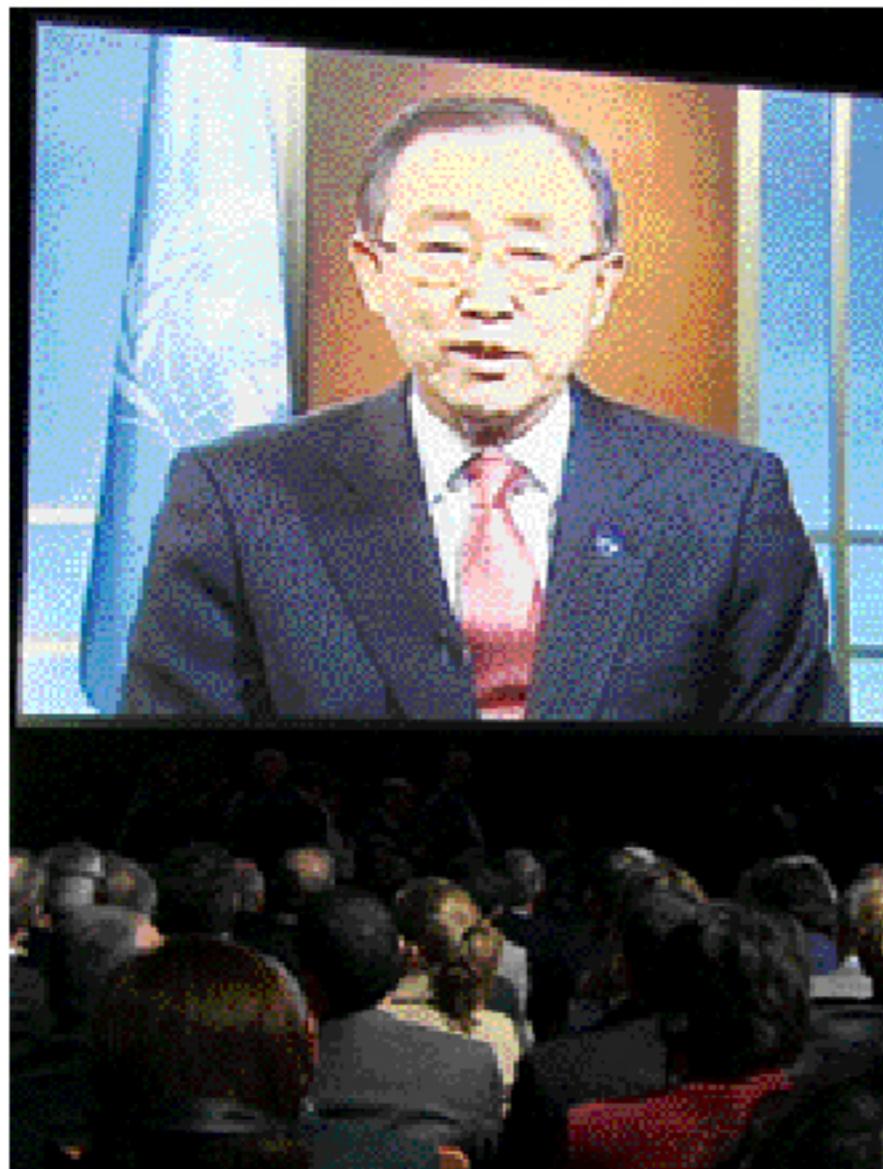
후원 _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구한의대학교 등



Contents

www.경영저널.com
September 2012



28

칭찬합니다

이완식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새로운 희망! 울진 생태 관광을 개척하다”

29

정책Focus

정확한 원가계산은 정책발전의 기본 토대

30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

물포럼 리허설 대구서 열린다

06

특별기획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참된 의미를 찾아서

14

News Wide

경북도 희망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

LG디스플레이 경상북도·구미시에
1조 2천억원 투자

16

Cover Story

김영석 영천시장
“영천이 주목 받고 있다!”

21

영천시정책특집

영천 한약장수·과일 축제, 영천문화예술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자연의 멋 영천

26

Dream Interview

재즈 보컬리스트 박라온





열정과 도전

꿈·희망·미래

-새로운 100년!

메마른 땅위의 꿈

척박한 환경에서도 새싹을 돋우는 희망

메마른 땅의 새싹은 미래입니다.

삼익THK의
새로운 100년의 꿈, 희망, 미래



삼익THK주식회사
SAMICK THK CO., LTD.

Contents

www.경영저널.com
September 2012

32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Ⅱ

한·중 수고 20년,
대구 대중국 수출 9배·수입 11배 증가

36 지역경제 동향분석

대구산업계는 한일협력 봇물

38 Hot Issue

시·군·구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40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투자 VS 주식투자 승패는?

42 TK membership Card

자연을 담은 약선 한정식 뜰안채



45 지역소식

2013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안동 유치확정
안동 2012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창작지원사업 협약식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상주시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부상
제16회 영양고추야가씨 선발대회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물 홍보사절



경영저널

통권 제38호

발행인·대표이사 이진구

편집인 서은주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경북취재본부장 백재호

편집위원 정성민, 홍순대, 손지강

전문기자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이한나

사진 김원현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주소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취재본부) 안동시 용성동 1427-6번지 203호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가격 5,000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_journal@daum.net)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참된 의미를 찾아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국민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란 뜻이다.

오늘날은 상류층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실천하지 않을 때 비판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경영저널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는 특집기사를 준비했다.(편집자 주)



재벌총수의 법정구속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8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 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그동안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암묵적으로 적용되던 집행유예의 관행을 깨고 실형선고와 더불어 법정구속이란 강력한 처벌을 단행함으로써 '만인 앞의 평등' 이란 법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경영자단체들은 '국가경제와 기업 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이 기업의 돈을 빼돌리는 배임과 횡령이 국가경제나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동안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재벌총수들을 우리사회의 치외법권인으로 인정하던 분위기는 최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앞에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7월 중순 여야 정치권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횡령·배임' 대기업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의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이라고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 국민보다 처벌을 약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새누리당과 신속한 공조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개정안이 대선을 앞둔 재벌 때리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대기업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했다.

'2000~2007년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149명 중 83.9%인 125명이 1·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은 법 위반을 눈감아 달라고 하기 전에 합리적 시장경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각성부터 해야 할

지난 50년간 불법과 합법, 도덕과 비도덕을 불문하고 한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키웠던 재벌이란 형태의 기업군이 이제 시대적 소명이 다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것이다' 몇 년 전이라면 민주노동당 의원의 발언이라고 착각할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 초기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상징되던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친(親) 재벌 정책이 180°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재벌개혁이란 아젠다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구속을 비롯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지난 50년간 불법과 합법, 도덕과 비도덕을 불문하고 한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키웠던 재벌이란 형태의 기업군이 이제 시대적 소명이 다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구체적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부(富)의 도덕성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다.

칼레의 6인과 이회영의 6형제

칼레는 프랑스 북부의 도버해협에 면한 항구도시다. 영국과는 불과 3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대로 전화(傳遞)에 시달렸던 도시이기도 하다.



△ '칼레의 시민' 동상(1895년.로댕 작)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당시 영국은 개전 초 10년 동안 패배만 하다가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필리프 6세에게 대패를 안겼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크레시 전투 승리 후 요충지인 칼레를 포위 공격했다.(1364년) 칼레의 시민들은 일치단결해 영국군에 11개월간 저항했으나 에드워드 3세의 봉쇄작전으로 식량이 떨어져 결국 항복하게 된다.

칼레의 지독한 저항에 분노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 전체를 몰살시킬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주위의 탄원이 계속되자 에드워드 3세는 새로운 항복조건을 제시했다. 시민대표 여섯 명을 뽑아 보내면 그들

을 교수형 하는 대신 칼레 시민들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칼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누가 전체 시민을 대신해 죽을 것인가?

그 때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 중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그 여섯 명 중의 하나가 되겠소' 놀랍게도 칼레 최고의 거부(巨富)인 위스타슈드 생 피에르였다. 그가 가장 먼저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생 피에르의 뒤를 이어 양떼를 칼레 시장이 나섰다. 또 다른 부유한 상인과 그의 동생, 법률가 등 칼레의 귀족 일곱 명이 죽음을 자원했다. 일곱 명이 자원하다 보니 한 사람은 빠져도

됐다. 제비를 뽑자는 말도 있었지만 '내일 아침 광장에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빼자'는 피에르의 제의에 모두가 동의했다. 이튿날 아침 여섯 명이 모였다. 그런데 생 피에르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 그는 이미 죽어있었다. 죽음을 자원한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 칼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자원자 6명은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걸고 자루옷을 입은 상태로 영국 진영으로 갔다. 그러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처형하면 임신 중인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다는 왕비 에노의 필리파의 간청을 듣고 그 용감한 시민 6명을 살려주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시는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조각가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현재 칼레 시청 앞 광장에 서있는 칼레의 시민이다.

로댕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상류층의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칼레의 시민'은 유럽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작품이 됐다.¹⁾

우리 역사에도 칼레의 6인을 넘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가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6형제들이다. 이회영은 조선 중기 명신이며 오성과 한 음이란 일화로 유명한 백사(오성) 이 행복의 11대손이다.

이회영의 집안은 조선시대 여덟 명의 정승과 세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로 그의 아버지는 구한말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이다. 이회영은 6 형제 중 넷째 아들로 위로는 세 형인 건영, 석영, 철영이 있었고, 아래로는 동생인 시영과 여동생 2명이 있었다. 이복동생으로는 소영과 호영이 있었다. 다섯째 동생인 성재 이시영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다. 한마디로 조선 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명문가요, 가히 삼한갑족이라 불릴만한 집안이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이회영의 6형제들은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이동해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정한다.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하게 목숨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것이 6형제의 일치된 뜻이었다.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조선의 귀족, 명문대가, 고관대작들은 대부분 일제가 수여하는 작위를 받고 이에 빌붙어 살면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했지만 우당 가문만은 달랐다. 그들은 일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의 항일전선에 몸을 바쳤다.

이회영은 60여명의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거처를 옮긴다.

1911년,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600억 원이 넘는 가산을 정리해 만주 서간도(요녕성 유하현 추가가) 지역에 이동녕, 이상룡 등의 독립 운동가들과 함께 경학사²⁾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교다. 1919년 까지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독립 운동가들만 3,500명이 넘는다. 신흥무관학교의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조선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했다.



▷ 우당 이회영

1920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멤버로 대거 참여해 청 산리전투에 참전했고, 그 결과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일본군 1만 2,000여명을 사살하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됐다. 이 학교가 없었다면 사실상 우리의 독립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회영 일가에게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이 시작되었다.

이회영 일가의 고난을 살펴보자. 이회영의 첫째 형인 이건영의 둘째 아들 이구면은 신흥무관학교 졸업 후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 병사했으며 셋째 이규훈은 만주에서 독립운

1)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칼레시민의 이 용감한 일화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이 일화의 기록자는 궁정작가이자 14세기의 대표적인 연대기인 《Chronicles》의 저자 장 프루아사르이다. 장 프루아사르는 당시 궁정작가로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와 왕비인 애노의 필리파의 후원을 받은 작가였으며, 그의 기록들은 과도한 애국주의적 관점과 부정확성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군의 역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칼레의 일화 역시 과장된 면이 많다고 한다. 시민대표들의 행위는 항복을 나타내는 포퍼먼스적 행동이며 에드워드 3세 역시 애당초 이들을 처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시민대표들의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항복의례로 연출한 장면이라는 것이다. 칼레의 일화는 장 프루아사르에 의해 민족적 정서와 애국심에 호소하는 미담으로 가공되었으며 19세기 말 프랑스 민족주의가 맹위를 펼치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로댕의 작품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상징 조작되었다는 견해다. 그러나 실제적 진실의 문제를 떠나 칼레의 일화가 유럽사회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2)경학사는 신민회 주요임원이었던 이회영·이시영·이동녕·이상룡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민족운동단체다. 구한말 비밀결사였던 신민회의 임원들은 조선의 식민지화가 임박하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 일대를 독립운동 근거지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에 걸쳐 이회영의 6형제와 이상룡·김창환·이동녕·여준·이탁 등이 가족 단위로 이주해 삼원보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고 1911년 4월 경학사를 설립했다. 경학사는 계몽운동의 이념이었던 식산홍업·교육구국론에 입각하여 생산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또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농업개발과 군사교육, 기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주된 활동목표로 삼았다. 경학사 설립과 동시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흥강습소도 설치했다. 그러나 경학사는 1912~13년에 걸친 흥작으로 곧바로 운영난에 부딛친 데다가 중국 관헌들의 탄압이 겹쳐 1914년 해산되었으며, 그 사업은 같은 해 조직된 부민단에 인계되었다. 경학사는 3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했으나, 그 조직경험은 그 후 만주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의해 계승되었고, 신흥강습소도 후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되어 독립군 양성의 종추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 경주 최부자집 고택

동 후 귀국해 공군 대위로 복무 중
6.25 때 실종됐다.

가장 많은 돈을 냈던 둘째 형 이석영은 중국 빈민가를 떠돌다 굶어죽었다. 이석영의 장남인 이규준은 의열단원으로 독립투사인 이해명과 함께 일제의 밀정 김달하와 박용만을 암살하고 중국 한구(漢口)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20대 나이에 병사했다.

셋째 형인 이철영은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병사했으며 모든 계획의 중심에 섰던 이회영 자신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예순 여섯의 나이에 중국 다롄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된 후 모진 고문 끝에 여순 감옥에서 옥사했다. 이회영의 둘째 아들 이규학은 사촌인 이규준과 함께 밀정 암살에 가담했고 셋째 아들 이규창은 친일파 암살에 가담했다가 일경에 체포돼 13년의 징역을 살고 광복 후 석

방됐다.

다섯 째 이시영은 6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광복을 봤다.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해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나 이승만의 독재와 권력 전횡에 반대해 부통령직을 사임했다.

6형제 중 막내인 이호영은 북경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33년 소식이 두 절됐다. 그의 아들들이인 이규황과 이규준도 함께 실종됐는데 일가족이 몰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6형제 일가족 모두가 목숨과 전 재산을 바쳐 독립투쟁에 헌신한 경우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다. 이회영 형제들의 고난이 너무나 커기에 6형제의 후손이 많지 않다. 현재 이회영 선생의 후손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와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가문의 맥을 잇고 있다.

우당 이회영 선생 6형제의 사례는 칼례의 일화처럼 과장이나 미화의 시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언과 기록이 이들 형제들의 고난을 생생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 최부자와 재벌빵집

조선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실천한 또 다른 대표적인 가문인 경주 최부자 집에는 '(소작료)만 석 이상 하지마라'는 가훈이 전해지고 있다. 이 가훈은 경주 최부자 집이 존경받는 부자로서 12대 400년간 부를 유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농지가 좁은 영남지방에서 만 석 이상의 소작료 수입은 필연코 무리가 따라 누군가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가문의 토지 경영원칙으로 토지 소작료 수입의 총액을 만석으로 고정하자 땅이 늘면 늘수록 최부자 집의 개별 소작인들의 소작료는 낮아졌다. 소작인들은 최부자가 더 많은 땅을 가지길 바랐고 팔 땅이 있으면 앞다투어 최부자 집에 알렸다.

그러나 최부자 집은 ‘흉년에 농지를 사들이지 않는다’는 또 다른 경영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궁박



▷ 마지막
경주 최부자
최준

한 사정에 편승해 재산증식을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양반지주들은 가뭄이나 홍수로 흉년이 들면 혈값에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고리의 대부업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테크 수법이었다.

한마디로 경주 최부자 집의 토지 경영원칙은 최부자집이 부유해지면 소작인의 곳간도 덩달아 불어나는 상생의 경제 형태였던 것이다. 최부자집은 ‘이윤 극대화’ 보다 ‘이윤 적정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발전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최부자 집의 이러한 상생의 경영원칙은 ‘재벌빵집’으로 상징되는 오늘날 재벌들의 행태와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 모자라 골목상권까지 썩쓸이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늘날 재벌들의 절제를 모르는 탐욕은 재벌빵집이 실제 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둘째 치고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정면에서 배반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집중된 경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 권력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진정한 의미는 상류층의 도덕성의 제고 문제와 더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더 이상 상류층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진 자의 양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제도화되기 어려우며 특히, 시대적 요구는 재벌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50여년 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농민들의 희생 속에서 또 국가의 정책적 특혜 속에서 성장해온 것이 한국의 재벌기업이다. 국민들은 오직,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란 명제와 ‘우리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보유해야 세계시장에 진출 할 수 있다’는 희망적 수사에 동의해서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왜 재벌이 존재해야 하는가?’란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기업을 쥐어짜는 약탈적 하도급 관행은 90%이상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과 복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나지만 경제력의 집중은 독점을 가져온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은 선출되지 않은 절대 권력의 횡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독점은 독재보다 무섭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가 꽂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와 도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가 꽂 될 것이다.



글 / 백재호 경북취재본부장

귀하만을 위한 “Smile Designer” 월치과병원



행복한 미소는 행복한 마음에서 옵니다.
쾌적한 진료공간과 원칙을 지키는 진료서비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책임지는 귀하만의
“Smile Designer”가 되겠습니다.

- 월치과병원 원장 신수용 조창식 - (前 미르치과병원 원장)

진료안내

- | | |
|--------|--------|
| - 임플란트 | - 구강외과 |
| - 치주치료 | - 치아미백 |
| - 보철치료 | - 근관치료 |
| - 치아교정 | - 예방치료 |

찾아오는길



■ 지하철 2호선 - 수성구청역 3번 출구(도보 1분 거리)

BUS 100, 309, 323-1, 420, 420-1, 425, 509, 609, 649, 724, 840, 939, 990, 991, 가정1, 수성1

평일 : 오전 9:30~오후 6:00
토요일 : 오전 9:30~오후 5:00
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 2:00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06-2번지 축산농협빌딩 5F 월치과병원 Tel. 053)741-1100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222-중-1734호

경북도 희망복지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서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으로 소명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편화 해

경북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국민연금가입 기초수급자 자격중지 한시유예 등 각적인 노력으로 복지소외계층 2,200가구 3,300명을 발굴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한 발 앞장서서 가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도록 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지침 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보호기능이 미흡 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심의 사례 유형을 확대하고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증빙서류를 간소화 했다. 특히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으로 소명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편화했다. 한편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탈 수급한 이후 소득 인정액이 100%~15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중지를 한시유예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로서는 근로의지 및 소득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탈 수급 시 기초수급자로서의 재진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행급여 특례 우선화대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정책 확대 결정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자립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복지소외계층의 자살이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내 어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약 100여일 간 무려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세상과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모두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단 한명도 자치구나 정신보건센터, 서울시 지원을 받는 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상담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즉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다.

다행히 경북도는 지난 7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000가구 1,600명이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이



번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구제될 전망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1,200가구 1,700명을 지원했다.

아무쪼록 경북도의 이러한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었던 복지소외계층에게 진정한 삶의 희망의 손길이 되어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LG디스플레이

경상북도·구미시에 1조 2천억원 투자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LTPS라인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경기도 파주시와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LTPS 라인 투자에 대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중소형 LCD 시장 성장에 대비한 a-Si(비정질실리콘)라인에서 LTPS(저온폴리실리콘) 라인 전환에 따른 것으로 김관용 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주) 전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11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LTPS(저온폴리실리콘) 라인은 고화질, 경량화, 슬림화에 용이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급증하는 스마트 기기용 고

〈 LG그룹 구미지역 투자현황 〉

'08년~현재까지

기업명	투자금액	고용창출	투자분야	투자기간	비고(MOU)
5개사	4조 9,995억원	14,695			
LG 디스플레이	1조 3,600억원	1,500	6세대 LCD	'08~'09	'08.07.10
	1조원	4,000	LCD모듈	'10~'12	'10.07.27
	1조 3,500억원	4,000	LCD모듈	'11~'15	'11.01.28
LG전자	1,005억원	650	태양전지	'10~'11	'10.03.24
LG이노텍	1,990억원	700	첨단반도체기판, 카메라모듈	'10~'12	'10.03.24
	5,130억원	2,500	카메라모듈	'12~'14	'12.04.27
루센	770억원	520	디스플레이용 전자칩	'10~'11	'10.02.25
실트론	4,000억원	825	솔라용 웨이퍼	'10~'16	'10.08.23

부가가치 패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올해 3분기 중 투자를 시작하여 2013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2008년부터 1조3,600억원, 2010년에는 1조원, 2011년에도 1조 3500억원을 LCD 라인 증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11년 말 현재 17,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의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LG그룹도 지난 2008년 이후 구미지역에 LCD, 태양전지, 첨단부품 등 첨단그린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총 5조여억원의 투자로 1만4천여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뮤답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시 혜택

-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타(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영천시장 김영석

Profile

1951년 영천
육군사관학교 졸(31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구대 명예행정학 박사
주 하와이 총영사관 영사
주 불가리아 주재 대사관 참사관
민선 4,5기 영천시장

최근 영천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1호인 일본 다이셀사 유치를 신호탄으로 포레시아 등 외국인투자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벌써 7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임대유보지 등에도 45% 이상 계약체결이 완료됐다. 2008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개발의 청사진이 제시된 이래,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는 인근 경제자유구역 지구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6년 완공예정인 영천경마장은 영천시를 대구경북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자체로 만들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을 만나 영천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영천이 주목 받고 있다!



△ 김영식 영천시장(좌)과 인터뷰 중인 본사 백재호 경북취재본부장(가운데)과 홍순대 편집위원.

일문일답

Q 민선 5기 2주년을 보낸 소감은?

A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영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제 욕심에는 차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영천을 만드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각 분야에서 보람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 벌여 놓은 일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앞섭니다.

Q 지난 2년간 영천시의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우선 우리시가 인구는 경북도 내 타 시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예산 규모는 2011년 기준 6,000여억 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만이 지역이 살길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서울과 도청으로 열심히 다닐 계획입니다. 또 기업유치에 노력

한 결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내에서 맨 처음 국제 자동차 기업인 일본의 다이셀 사와 유럽 최대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포레시아사를 유치했습니다. 일본 다이셀사는 지난 7월 10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5월 시험생산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연간 720만개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수입 대체효과와 함께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영천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유수의 기업을 유치했고 기존 기업의 신규 투자 등으로 총 1조 4,7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효과와 6,7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Q 사회간접자본과 R&D 투자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 주신다면?

A 영천은 지금 산업구조에 있어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첨단 R&D 연구기관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바이오메디컬종합기술센터 등과 공조하여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이 영천을 중심으로 더욱 집적화

해 나감과 동시에 항공과 바이오 등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신녕, 화북~청송, 작산~도동삼거리 간 도로 등 총 25개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영천의 산업발전을 위한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인증면적이 1,596ha로

경북 도내 4위권에 진입시켰고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과 축산물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Q 영천에 경마공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도 많은데요. 경마공원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A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영천 경마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말 산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윤이 큰 산업입니다.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800억을 투입해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연 면적 1,480,000m² (448,000평) 규모의 경마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레저세 감면문제만 남았습니다.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 것입니다.

협약이 끝나면 영천경마공원을 조기 개장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이행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보상에 있어서도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도 조속하게 만드는 등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레저와 문화가 있는 말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제규모의 영천경마공원을 조성하고 풍락지 수변테마파크 등 경마공원 주변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운주산 승마장을 활성화시켜 레저와 문화가 공존하는 말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Q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안은?

A 먼저 영천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빠른 시일 내 기업입주를 완료하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역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이상적인 도농 복합 도시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천댐 일원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낙동정맥트레일을 조성하고 ‘푸른영천가꾸기사업’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웃는 그린에코타운 시대를 열어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의 강 정비’, ‘고현천 하천환경정비’, ‘북안천 생태하천복원’, ‘영천댐 인공습지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생태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영천댐 일원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밀그림을 잘 그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금호읍 소도읍육성사업, 개발 촉진지구 기반조성 등도 순조롭게 마무

리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Q 영천은 선비의 절개가 흐르는 고장입니다. 시장님은 지역문화 컨텐츠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와 교육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그동안 포은 정몽주선생 생가복원 등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2차사업과 최무선장군 성역화 2단계사업, 국책사업인 화랑설화마을·한의마을지구·영천 전투,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조성, 왕평 재조명 도심 문화기행 등의 관광콘텐츠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어르신·여성·아동·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 등 골고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천의 공무원들이 노력해왔습니다.

마을종합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쾌적한 농촌환경기반 조성해 이상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는 현재 영천시장학회가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억 장학기금 모금을 조기에 달성해 영천인재양성원·영천 학사·영천영어타운 운영을 지원하고 무상급식 확대지원과 예·체능 영재육성 등 시민들께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시장님의 행정철학을 소개해 주신다면?

A 직원회의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고 또 뛰어 찬스를 잡아라(선점하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10년 후, 20년 후 또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영천을 만드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직자들에게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신성장 동력 사업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답 / 백재호 경북취재본부장
정리 / 이한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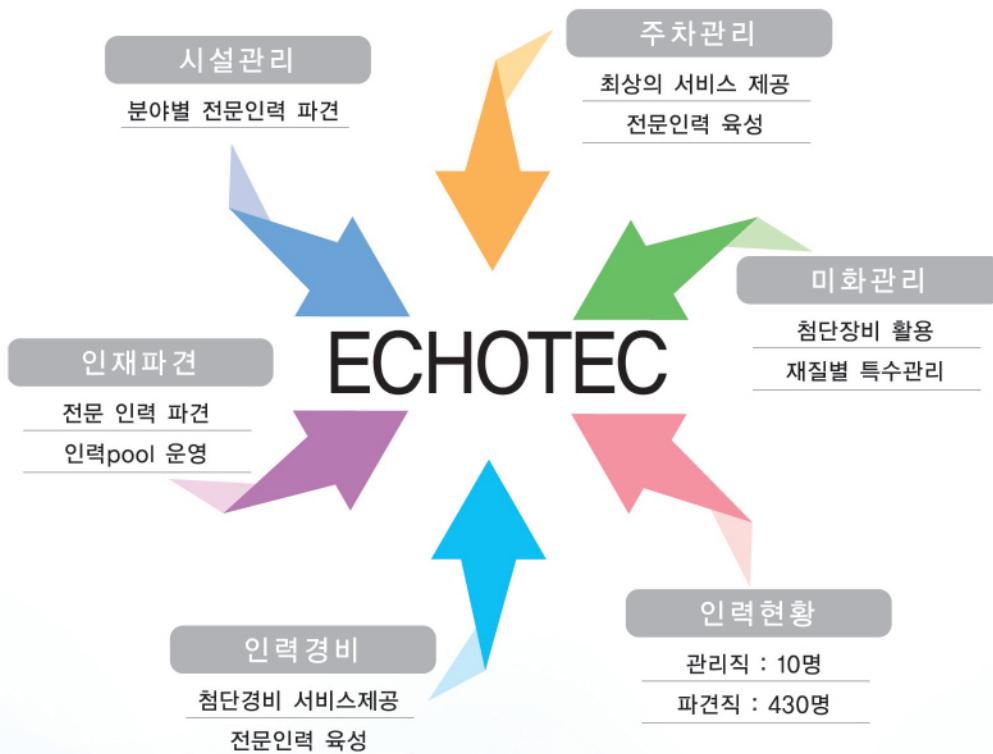


아웃소싱 업계의 대표기업
믿을 수 있는 업체

(주)에코텍

다년간의 Outsourcing Service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Group

주기적인 관리와 피드백으로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건물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번지 그랜드M타워 13층 1301호
Tel 053)522-9224, 568-4001 Fax 053)522-9225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59-9번지 2층
Tel 054)455-4001 Fax 054)458-4007

영천 한약장수·과일 축제, 영천문화예술제

- ◆ 축제기간 : 9.19~ 9.23
- ◆ 축제장소 : 금호강 둔치마당, 완산동 한약거리 일원





품격 높은 건강, 웰빙여행 한방특구 영천에서

영천의 한약과 과일, 문화예술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10회 영천한약장수축제, 제11회 영천과일축제, 2012 영천문화예술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금호강 생태하천공원과 완산동 한약거리, 도동 한약유통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영천시는 과일축제를 부활해 기존에 열리던 한약장수축제, 영천문화예술제와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과수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는 3개의 축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농업인 단체의 화합행사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특히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가올 추석을 겨냥해 추석선물 구매와 추석장보기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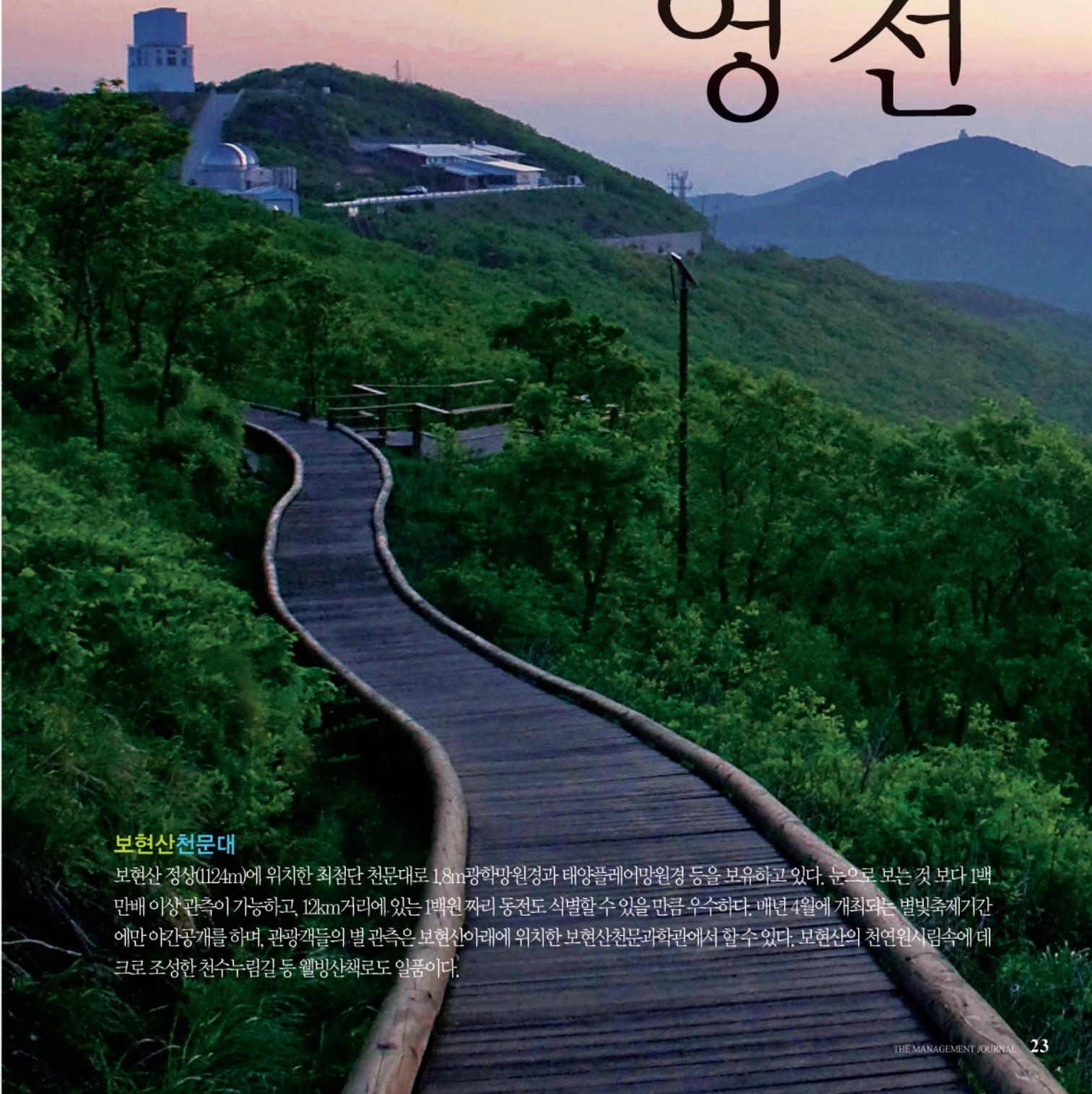
과일 천국 영천, 한약재 유통량의 30% 차지, 왕평가요제

영천시는 예로부터 비가 적고 일조량이 많은 천혜의 기후조건으로 당도 높은 고품질의 과일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포도는 전국의 14%, 복숭아는 12%를 차지하며 각각 전국 1위의 최고 재배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한약재도 전국 유통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에 한약축제를 개최해 지역의 한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천문화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2012 영천문화예술제'도 축제 명칭을 영천의 옛 이름 '골별'에서 '영천문화예술제'로 이름을 바꾸고 왕평가요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공연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자연의 멋
영천



보현산천문대

보현산 정상(1124m)에 위치한 최첨단 천문대로 1.8m 광학망원경과 태양플레이어망원경 등을 보유하고 있다. 눈으로 보는 것 보다 1백 만배 이상 관측이 가능하고, 12km 거리에 있는 1백원 짜리 동전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하다. 매년 4월에 개최되는 별빛축제기간에만 야간공개를 하며, 관광객들의 별 관측은 보현산 아래에 위치한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할 수 있다. 보현산의 천연원시림 속에 데크로 조성한 천수누리길 등 웨비ング산책로도 일품이다.



은해사 전경

대한불교조계종제10교구본사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의 자리를 지키는 경북지방의 대표적 사찰로 아미타불을 모시는 미타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천년고찰이라는 역사에 걸맞게 괘불탱(보물 제1270호), 대웅전 아미타 삼존불 등 많은 소장 문화재들이 있으며 대웅전과 보화루, 백홍암 등 의 현판글씨가 모두 조선시대 명필 추사 김정희의 친필이어서 유심히 살펴볼 만하다. 팔공산의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함께 펼쳐져 있어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둘러보기에도 더 없이 좋다. 산내에는 거조암, 백홍암, 운부암, 중암암, 기기암 등 8개의 암자가 있다.

포은정몽주 임고서원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에 위치한 임고서원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1337~1392)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다. 1553년 조선 명종 8년에 영천지역의 퇴계선생 제자들에 의해 임고면 고천동 부래산에서 최초 창건을 하였으며 이듬해인 1554년에 나리에서 임고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이는 소수서원 다음으로 2번째 사액서원이다. 영천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사상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임고서원 일대 4만 7884m²부지에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유물전시관(포은유물관), 생활체험관(충효관), 조옹대, 선죽교, 연못(용연) 등을 건립하고 지난 5월 준공식을 가졌다. 임고서원 소장전적 및 포은 정몽주 영정이 보물 제1109호, 11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원 앞에는 수령 500년된 은행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다.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국내 최초 산림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2009년에 개장했다. 73ha 면적의 소나무 임지에 숲속 신장 11동과 다목적 구장, 산책로, 생태관찰데크 등이 있는 휴양림 지구와 실내·외승마장, 산악승마로, 외승로 등에서 다양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체험자구로 구성되어 있다. 인근에는 임고서원과 대중골프장이 있어 역사문화탐방과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 새로운 산림문화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2013년 개장을 목표로 산림문화휴양단도 조성 중에 있다.



임고서원 전경



승마자연휴양림 전경

2012년 9월 21일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군민 교양교실

군민교양교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홍렬의 웃음 바이오닉스

2012년 09월 21일(금) 오후 2~4시 장소 : 대가야 국악당

이홍렬(李洪烈)

오산대학 예체능계열 이벤트연출과 겸임교수,
리센엔터테인먼트 대표

〈참가안내〉

- ※ 참가자께서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제 강사에 대한 추천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고령군청 총무과(☎ 950-62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

서울시립대학교 그룹사운드 제퍼나이어 활동
서울재즈아카데미 8기 작편곡과 정규반 수료
서울재즈아카데미 8기 보컬과 보급반 수료
前서울재즈아카데미 보컬과 강사 역임
現 서울 슬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 보컬 활동
現 서울 종합예술학교 출강
現 대구 렉쳐 콘서트 '박라온의 Jazz & Story' 진행자

재즈 보컬리스트

박라온



My Story

"박라온의 재즈 앤 스토리" 공연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한 달에 한 번 선보이는 재즈 콘서트이며 스토리가 있는 렉쳐 형식의 공연입니다. 재즈하면 사실 어렵고 난해한 음악장르여서 선뜻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 공연중에 재즈에 대해 설명해주고 관객들과 함께 노래도 배우면서 소통하는 공연입니다. 모 방송국 '유희열의 스케치북', '윤도현의 러브레터'처럼 제가 호스트가 되고 매 달 다른 재즈 뮤지션을 초청하고요, 초청된 게스트 뮤지션과 관객사이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거죠.

그때 그 공연

6년전쯤에 일본 오사카 지역의 '다카츠키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었을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별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좀 않좋은 감정이 있었는데요. 일본 공연이라서인지 우리나라 민요를 재즈로 편곡해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 싶어 연주했어요. 공연을 하는 내내 너무나 생소하게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어요. 가깝고도 먼 일본에서 나의 재즈에 귀기울여 들어주는 관객들이 있음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사람들은 물론 재일 교포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 공연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일본에서 음악을 해야겠다.'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2년후에는 1집 앨범이 일본과 한국에 동시 발매가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조경학도를 나온 공학도인데 재즈 보컬이 되었다

음악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지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죠. 대학을 다니면서 조경학이란게 공부하기에 참 재밌는 학문이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불연듯 '음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즈를 하게 된 계기...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대담 / 이한나 기자



‘재즈계의 이선희’

라는 말은 키가 작은데
가창력이 좋다는 이유로
어느 기자분이 기사를
써주셔서 생겨난 별명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스스로
‘재즈계의 아이유’라고
바꿔부르고 있어요.
덕분에 아이유의 삼촌팬들로부터
무한 야유를 받고 있지요.(웃음)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이완식**

새로운 희망! 울진 생태 관광을 개척하다



농업과 어업이 주 산업이던 울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5년 개최된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는 그 시발점이 됐다. 2009년에 두 번째 개최된 친환경농업엑스포는 그 규모나 수준이 2005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울진의 변화를 위해서 막후에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만 울진군청 문화관광과의 이완식 과장은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존재다. 한때 '깡촌'의 대명사였던 울진의 이미지를 첨단 친환경 관광도시로 변모 시킨데는 이완식 과장의 열성이 큰 역할을 했다.

일찍이 그는 울진의 청정한 환경이 어느 지역에도 없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울진의 미래는 청정한 환경을 어떻게 상품화 할 것인가에 달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이완식 과장은 2009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조직위원회 기획부장을 맡아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조정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이 없

을 정도로 2009년 울진 엑스포에서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도 성류문화제나 평해남대천단오제 등 문화축제 지원사업과 콘서트, 연극, 영화, 무지컬 등 매년 30~40차례 공연기획과 공연대관 업무를 이끌고 있고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울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 업무를 주도하는 등 체육 분야에도 열심이다. 특히 2011년 개최된 제49회 경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낀 일이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백암 길거리 공연, 워터피아 페스티벌 등 축제 개최와 체험울진가족여행, 정기시티투어, 붉은대게 관광열차, 초청 팬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이완식 과장의 열정은 울진군이 금년에 제4회 한국관광 대상 등 관광분야에서 4개의 대상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는 밑거름이 됐다.

고향을 지키며 지역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려는 이완식 과장과 같은 공직자가 있는 한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청정 생태 환경 지역 울진'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글 / 백재호 경북취재본부장

Profile 2009 울진 친환경 농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울진군 기성면장, 북면장 울진군 도시개발과장. 울진군 문화관광과장(현), 경북도민체육대회 유공 표창(경북도지사), 국가사회발전 유공 표창(행정자치부 장관)

정확한 원가계산은 정책발전의 기본 토대

전문 인력과 실적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용역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면서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지방자치의 시대가 본격 궤도에 오른 후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거시적인 정책결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요금, 버스·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의 금액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이라는 형태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역은 크게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

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원가계산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현재 원가계산 기관은 원가 관리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전국 74개, 대구·경북 지역 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비 등록 기관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 원가계산용역

기관에 의해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기업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는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 적정한 이윤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한 예정가격 산정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원가관리의 효과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원가계산 기관의 난립과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원가계산 전문 인력과 실적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용역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제시하면서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가계산은 지자체 정책결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계약 담당자들은 단순히 용역비용이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전문 인력과 실적을 보유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정책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물포럼 리허설 대구서 열린다

제1회 대한민국 물산업전 9월12일 엑스코서 개막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대거 참가

2015년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준비와 국내 물산업의 활성화 및 최신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대한민국 물 산업전'이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시, 경북도, 국토해양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물 산업전은 '물과 도시'라는 주제로 9월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이 대거 참가해 다양한 물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물 산업전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물 산업에서의 기회 선점과 물 산업 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참가 기업 및 제품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는 1997년 창립된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500여개 하·폐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분뇨처리

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통합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자부하는 <주>태영건설은 다양한 상하수 도시설 시공시스템과 종합적인 토털솔루션 서비스를 이번 물 산업전에 선보인다. 해외 물 산업 진출 기반을 확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중인 태영건설은 상수 처리부문에서 하루 100만t 정수능력의 동양최대 시설인 강북정수장 등 지난 20년간 54개소의 상수처리장을 시공했다. 하수처리부문에서는 국내최초 하수도 민간투자사업(SOC)인 가은하수처리장, 동양최대의 폐수처리사업인 울산 용암 폐수처리장 등 70곳의 하폐수처리장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1972년 제일합섬으로 출발한 이래 역삼 투분리막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필터 등 환경소재사업에 진출한 <주>웅진케미칼은 94년 해수淡化, 초순수 제조, 폐수 재활용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역삼 투멤브레인(RO)의 상업생산에 성공했으



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 통합분야의 설계 및 시공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력 제품은 고효율 인彻리 시스템으로, 하천의 조류 성장 제한 인자인 P(인) 성분을 물리·화학적처리(교반 응집 여과) 공정을 통해 T-P(총인)농도를 0.2mg/kg까지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수질의 생태복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 물 산업 선두주자라고



며, 98년부터는 마이크로필터(MF) 제조 라인을 보유한 수처리 종합회사로 성장 한 회사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한 CSM멤브레인은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특히 내오염성막(FRM) 제품은 폐수재활용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품질 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저압용제품, 초순수용제품, 해수담수화용 제품 등 다양 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

1986년 설립된 <주>로열정공은 대구의 대표적인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국가기 간시설 및 국내외 산업시설에 설비를 공 급하고 있다.

대표적 제품인 원심분리기는 각종 하폐 수에 함유된 부유물질을 다양한 분리목 적에 적합하도록 회전하는 장치의 원심 력과 비중차를 이용해 물과 분리하는 장 치다. 용도와 성능에 따라 원심탈수기, 원심분리기, 원심농축기, 협잡물처리기 등으로 나눠진다.

세계 물 시장 트렌드 한 눈에

이번 행사에는 또 물 산업 관련 글로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세계 물 시장의 트 렌드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일반 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린다.

행사 첫 날인 12일 열리는 국제콘퍼런스 에는 세계최고의 물환경 인프라 기업인

미국의 CH2M HILL사의 글렌 다이거 IWA(국제물협회) 회장이 '세계 물시장의 10대 트렌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 120년 동안 물 관리 사업에 주력해온 프랑스 수에즈 인바이런먼트의 발렌티나 라자로바 본부장이 '폐수처리에서의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미국 워터글로브 사의 니콜라이 부츠코프 대표가 '해수담 수화에서의 에너지사용'에 대해 특별강 연을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해수담수화협회 관계 자와 일본 및 국내외 전문가가 각 국의 수자원확보 및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정 책에 대해 전문적인 강연도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 회찬 박사가 IBM, GE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물 산업 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박현주 교수가 빗 물에 대한 강연 및 시연을 하는 등 일반 인과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주 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주요 행사로는 물 산업 제품 전시, 국제 콘퍼런스,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대구 수돗물 체험 투어(신천하수처리장·문 산정수장) 및 물 시설 투어(강정고령보·달성보 등), 4대강 사업 사진전, 워터 소 물리에 체험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엑스코 1층 전시장에서는 물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과 대구·경 북지역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물 관련 기관 등이 200여개 부스 규모로 물 산업 의 새로운 미래를 조망한다.

같은 기간 경북에서도 낙동강 물 주간 행사가 열려 안동에서는 물과 문화, 상주 에서는 물과 청소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4 대강 보 사진전을 비롯해 대구·경북 6 개 보의 수력발전, 보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대한 정보와 정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DYETEC연구원(옛 염 색기술연구소)은 섬유와 염색폐수처리 기술과 멤브레인 기술과의 연관성, 섬유 염색 산업과 관련된 물 산업 부품소재 개발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와 전시를 마련 한다. 관람을 원하면 홈페이지 (<http://www.waterexpo.co.kr>)를 통해 9 월5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진용환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행 사는 물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핵심 유망산업을 선점하고 수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물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 기가 될 것"이라며 "2015 세계물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노하우 축적은 물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수 객원기자

한-중수교 20년, 대구 대중국 수출 9배-수입 11배 증가



중국, 20년간 대구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한-중수교 20년, 지역의 대중교역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의 대중국 수출은 1993년 1억7천만달러에서 2011년 현재 14억8천달러로 8.7배 정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지역의 총 수출증가세는 1.3배 늘어나는데 그쳐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졌다.

또 총 수출액 대비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3년 3.6%에 불과하던 데서 2011년에는 23.3%로 급증했다. 대구지역의 국가별 수출비중은 중국이 1위, 미국 2위, 일본 3위에 이어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연

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도별 대구지역의 대중국 수출 비중 순위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7위에 불과했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6위, 1999년에는 8위에 머물던 것이 2001년과 2002년 3위로 올라선 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부동의 1위를 자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3년 1억3천만달러에서 2011년 14억2천만달러로 약 11배 급증했고 수입비중도 10.3%에서 38.4%로 크게 높아졌다. 국가별 수입비중은 1위 중국에 이어 일본, 미국, 독일, 대만순으로 나타났다.

20년간 대중국 수출액 추이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기파른 증가세를 보인

■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20년만에 대구지역의 대중국 수출은 9배 늘어난 반면 수입은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과 수입비중 모두 다른 지역에 비해 입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 2009년까지는 다소 주춤해지는 듯 했으나 2010년 10억달러를 돌파하며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비중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25.1%를 고점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추세다.

수입액 추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2009년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비중은 2007년 43.7%로 고점을 찍은 후 이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2011년 기준으로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1억7천800만달러로 가장 많고 광학기기(1억4천300만달러), 조명기기(1억4천100만달러), 섬유작물(1억 달러) 등으로 2000년과 비교해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대중국 투자 2008년 이후 주...산동성에 투자 몰려

1993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대구지역의 대중국 투자는 약 6억6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중 대구지역 전체 해외투자액 13억8천만달러의 약 절반정도인 47.6%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투자추이는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부터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내 지역별 투자 실적은 자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대구시와 자매도시인 칭다오가 위치한 산동성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요녕성과 강소성, 천진시, 북경시, 광동성, 하북성, 상해시, 길림성, 절강성 순으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 향후 중국시장 전망 '긍정적'

대구상의가 중국과 교역하고 있거나 교역한 경험이 있는 지역내 31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로 중국과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이 23%로 가장 많고 섬유(21.7%), 기계금속(18%) 순이었다.

수출규모는 100만달러 이하가 40.4%로 가장 많고 100만~500만 달러 36.8%, 1천만달러 이상 15.8%, 500만~1천만 달러 7.0%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반제품이나 부품 등 중간재가 54.1%로 가장 많았고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 24.6%, 원자재와 원료 등 1차생산품 11.5% 순으로,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 보다 중간재 위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품의 국내 품질경쟁력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80%에 달해 지역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상당한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경쟁력 부문에서도 '높다'는 응답이 45.6%, '낮다'는 응답이 19.3%로 가격경쟁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중국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희대될 것'이란 응답이 44.3%로 '축소될 것'이란 응답(16.4%) 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또 앞으로 중국시장의 중요도에 대한 물음에도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란 응답이 47.5%로 '낮아질 것'이란 응답 11.5% 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시장의 전망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해서도 FTA체결 이후 대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 전망이 52.2%로 축소될 것 이란 전망(4.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한-중 FTA가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대중국 수출 증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가격 경쟁력 제고란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제품 개발(21.3%), 마케팅 강화(16.4%), 시장 환경 변화 대응(13.1%), 기타(1.6%) 순으로 응답했다.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지원기관의 지원사항으로는 무역금융 확

대라는 응답이 65.6%로 대부분 금융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신정보 제공(19.7%), 시장개척지원(11.5%), 기타(3.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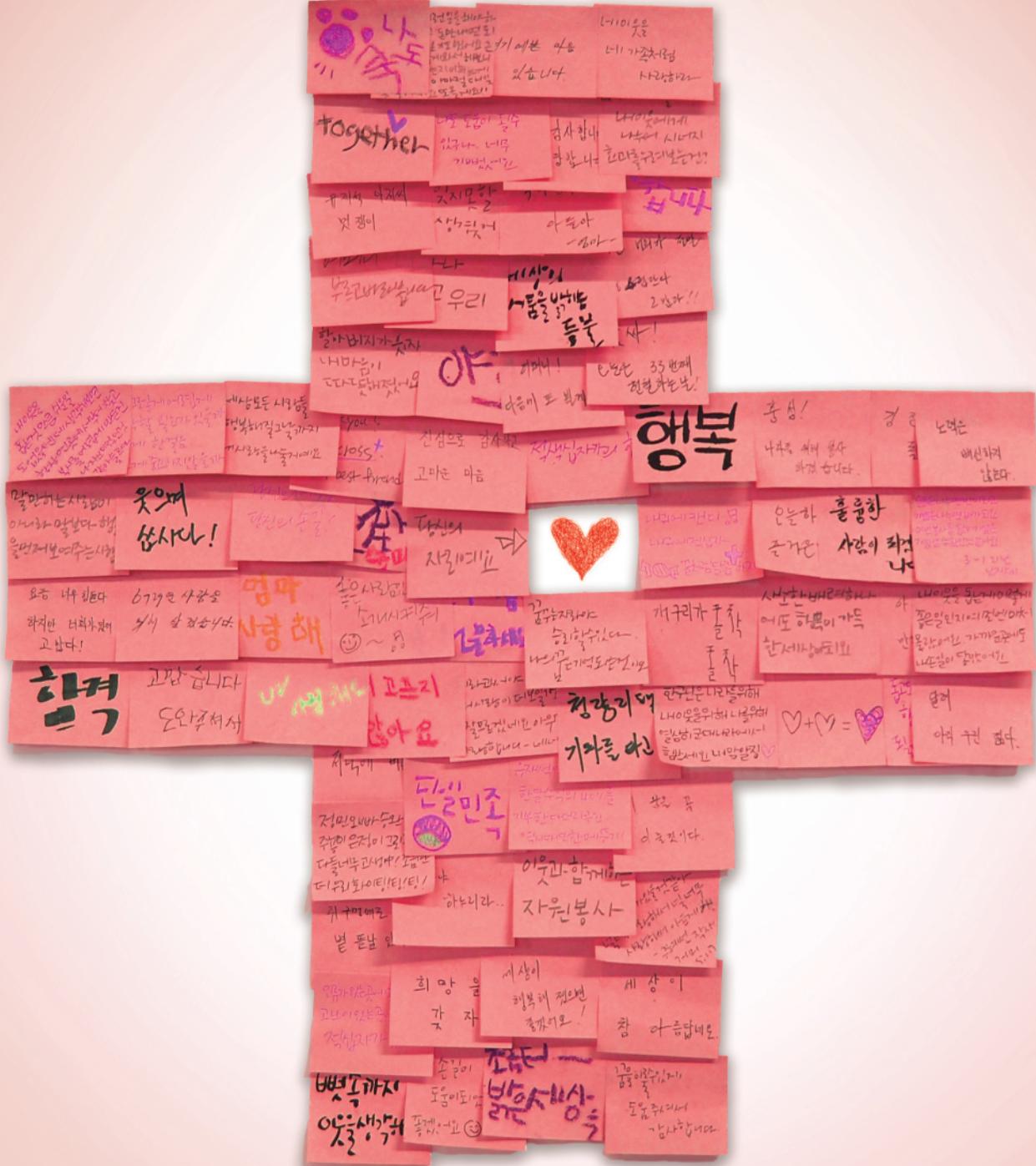
무역금융, 시장개척 지원과 남부권 신공항 등 접근성 향상 시급

대구상공회의소 임경호 조사부장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우리나라와 대구지역의 1위 교역국으로 자리잡았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올라 향후 교역확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부적인 수출증대 지원과제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와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 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또 현재 대구에서 주 13회 북경, 상해, 심양으로 취항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횟수와 운항지역을 확대하고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과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등 물류와 접근성 향상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중FTA에 철저히 대비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대구 유치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문화콘텐츠 분야의 수출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성문 객원기자



당신의 **마음**을 봄여주세요.

너와 나, 우리가 채워나가는 세상

우리의 자발적인 봉사문화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적십자와 함께하세요!

경영저널이

TK
membership card
회원을 모집합니다.



프리미엄
광고·홍보 혜택

- TK멤버십카드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공익차원의 멤버십카드입니다.
- 경영저널은 본보를 2년이상 구독하는 유료 구독자들에게 TK멤버십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TK멤버십카드 회원에게는 골프장, 호텔, 테마파크 등 회원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산업계에는 한·일 협력 바람이 불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내에 '일본 기업 전용공단(Japan Zone)'을 조성하는가 하면, 한국OSG와 삼익THK에 이어 삼성LED와 일본 스미토

모화학의 합작사인 SSLM까지 대구에 설립되는 등 일본과의 다양한 협력이 지역 산업계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다. Japan Zone은 대구시가 지난해 3·11 일본 대지진 이후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국가산단 내 43만m²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아종 23

만m²를 일본 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하게 된다.

2013년 말쯤 조성될 Japan Zone 입주 기업은 부지매입비의 7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료(75~100%)와 국세·지방세(1천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부지 매입보다 임대 방식을 선호

한·일 갈등 깊지만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대구산업계는 **한일협력 봇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내 일본 기업 전용공단 조성
부지매입비 지원 등 혜택 일본 기업들의 관심 쏟려
한국OSG·삼익THK이어 삼성 LED-스미토모화학
합작사인 SSLM도 대구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기여





일본 OGG합작사인 한국OSG 전경과 일본 스미토모화학과 삼성 LED합작사인 SSLM 기공식 장면 대구 신입계에서는 일본과의 협력 비빔이 일고 있다.

하는 일본 기업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1976년 일본 OSG와 합작사로 설립된 한국OSG(회장 정태일·대구시 달서구 갈산동)는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정밀 기계공구 종합 메이커로서 최고의 품질로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우리나라 최장 수상기록을 세운 한국OSG는 절삭공구의 국산화 성공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은 물론, 일본으로까지 역수출하고 있다.

정태일 한국OSG 회장은 “독도 문제로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산업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력에서 앞선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협력과 동시에 ‘탈 일본’을 위한 경제인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4년부터 세계적인 기업인 일본 THK와 인연을 맺은 삼익THK(회장 진영환·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역시 기술

이전 등의 협력을 통해 크게 성장했다. 60년 창업해 공구용 줄 생산부터 시작한 삼익THK는 70년대 삼익쌀통에 이어 84년 THK의 국내총판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기 시작해 91년 THK와 각종 장비의 필수 제품인 LM가이드(직선운동 베어링)에 대한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LM 가이드 공장을 준공했다.

THK는 전 세계 LM가이드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독자 기술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다.

하지만 삼익THK에 대해서만은 많은 기술을 이전해주며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삼익THK 경영기획실 김경호 부장은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며 신뢰를 쌓다 보니 지분까지 참여하는 등 두 기업이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 같다”면서 “일본 기업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활용한다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스미토모화학

과 삼성LED(현 삼성전자 LED사업부) 합작사인 SSLM 제1단계 공장이 대구 성서5차산업단지에 준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 회사는 투자금액을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한·일 합작회사의 사금석이 되고 있다. SSLM은 2천123억원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채용 계획이던 89명의 3배에 달하는 240명을 고용했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매출액 5천억원이 전망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SSLM의 사파이어웨이퍼 사업은 국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대구도 투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설비 및 공정기술은 국내장비 국산화와 소재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SSLM은 2015년 제3단계 공장까지 대구에 준공할 예정이다.

서기대 객원기자

시·군·구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까지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서 시·군·구 통합문제로 해당 지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간 통합처럼 양 지역이 모두 찬성하며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군 지역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거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정책 목표시한인 2014년 지방선거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무엇이며, 시·군·구 통합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역사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논의는 80년대부터 정치권과 학계에서 시작되었으나, 꽤 오랫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부터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 후 시작됐다. 현 정부 들어서 2008년 9월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합의하고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여·야 정치권은 '자치구 개편 방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특별법안에 규정

된 자치구 의회 폐지조항은 삭제' 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개편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 4대 협의체에서 8명을 추천해 구성키로' 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法人) 근거규정을 삭제' 키로 합의했다.

2010년 10월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 특별법을 근거로 위촉직 24명과 당연직 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위촉직은 24명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위원이며 당연직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6월 2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다. 기본계획은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2012년 중점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도지위 및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 강화(2013년 중점과제) 등의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특별법 제12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규모로 통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은 전국 시·군·구 36곳을 16곳으로 통합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를 뼈대로 하고 있다.



〈 통합대상 시·군·구 16개 지역 〉

구분	통합대상 시·군·구
건의 지역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동해+삼척+태백,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미 건의 지역	도청이전지역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 종로구+중구(서울), 중구+동구(부산), 연제구+수영구(부산), 중구+남구(대구), 중구+동구(대전)
	기타 청주+청원

* 자료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 통합대상은 건의지역과 미 건의 지역으로 나뉘며, 건의 지역은 지역의 여론조사(50% 이상) 및 기타 통합여건을 감안해 선정된 지역. 미 건의지역은 대규모 사업, 인구와 면적,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지역임.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건의가 있었던 14개 시·군을 6곳으로 통합하고, 도청 이전 지역, 새만금권·광양만권역, 인구나 면적이 적은 구 등 20개 시·군·구를 9곳으로 통합한다. 충북 청주·청원은 특별법의 특례로 인정해 통합 대상에 넣었다.

더불어 개편추진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도록 하되,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1안과 서울처럼 구청장을 선출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서 사실상 '자치구'를 없애고 '행정구'로 되돌리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개편추진위는 특별·광역시의원

수를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주민갈등의 증폭,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시비

통합 대상 16개 지역 중 청주-청원, 전주-완주 정도를 제외하면 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와 기초의회 폐지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이해관계인들의 반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 역시 쉽게 잠재우기 힘든 과제라 하겠다. 인구와 면적이 큰 지역보다 작은 지역들의 반대가 극심한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이

온하던 라이벌 지역에 흡수된다는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광양만권에선 여수시·광양시는 통합에 적극 반대하고 있고, 순천시만 찬성하고 있으며 강원 동해·삼척·태백도 삼척시는 적극적이나 동해·태백시는 부정적이다. 통합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도, 주민 간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을 해야 한다면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선 안 되며, 인내심을 갖고 주민의 뜻을 존중 하는 정책집행이 요구된다'며 성급한 시군통합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글 / 백재호 경북취재본부장

부동산투자 VS 주식투자 승패는?



대개 사람들은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에 대해 고민한다.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투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상별로 대답은 가계의 보탬, 노후대책, 사업자금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처는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크게 2가지이다.

부동산투자는 투자금 손실의 위험성과 주식투자와 달리 목돈이 있어야하고 환금성이 낮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힘들다.

주식투자의 경우 원금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뿐더러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도 밀리기 십상이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지만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다.

주식투자와 부동산투자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분석해 투자하여 이익이 생길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관련 직종의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업체들의 정보나 켤리티나 노하우 등으로 인해 성공적인 투자, 실패한 투자나가 나눠 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였다.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56.8천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량은 금년들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거래량 감소폭은 6월(△29.3%)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에 4년째 장기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틈새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대비 30~40%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고점까지는 가기 어렵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올 것이라 본다.

최근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투자가 위험하다고 한다. 실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면 부동산투자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서 땅처리 상품은 신규 분양가보다 20%~40%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내년 중반기 이후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본다. 회복이 오면 적어도 3~4년간 지속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한,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부동산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번째, 관심있는 지역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 1곳 ~ 3곳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분석, 연구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기간에 큰 소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먼 곳을 바라봐야 하며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세번째,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지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두어야 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번째,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를 부르는 투자를 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 부동산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수많은 투자 방법과 사례가 있다. 투자방법도 개발, 경공매, 매매 등 각 종류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원현 기자



자연을 담은 약선 한정식

뜰안채

뜰안채는 절기(節氣)음식을 바탕으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오색(五色)과 오미(五味)를 배합한 양생약선(養生藥膳)을 추구하며 맛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대 구시 수성구 중동에 위치한 뜰 안채 우은주(48)대표는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에 필요한 당분은 설탕을 대신하여 계절과일 발효액으로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계절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에 평한 약재(하수오, 길경, 황정 등)를 사용하

여 손님들의 몸을 먼저 생각 하는 우은주 대표의 경영철학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우 대표는 대구한의대에서 약선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웠으며 6년정도를 공부하여 장류 등 천년양념과 식자재도 자체 개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연구한 한식을 바탕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찾아주자는 뜻에서 약선 한정식집

을 열었다."고 소개한다.

뜰안채는 기본적으로 마시는 물부터 눈길을 끈다. 감초, 백작약, 당귀 등 5가지 이상의 약재를 우려낸 물을 손님에게 대접한다. 식전에는 검은깨와 찹쌀을 사용한 흑임자죽이 나온다. 특히 주인장이 직접 발효한 요구르트 야채샐러드가 눈에 띈다. 봄에는 딸기 오렌지, 여름에는 파인애플 복숭아, 가을에는 포도, 겨울은 귤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샐러드를 맛 볼 수 있다.

이어서 나오는 음식은 숙지황을 우려낸 소스에 인삼과 대추가 살포시 놓여 진 전복로는 맛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부드럽고 단백하다. 메로찜은 길경(칡즙)을 우려 낸 양념소스에 무, 고추, 새송이버섯으로 조리하여 맛 또한 감칠나다. 계절별 과일즙을 농축하여 파인애플, 파프리카, 검은깨로 조리한 연근표고ginger. 수삼, 배, 오이, 대추 등을 끓과 배와 함께 갈아서 만든 소스의 수삼샐러드는 특히 남자 손님들이 좋아 한다고 말한다. 헤모글로빈 생성하여 혈액



정안수를 떠 놓고 가족의 건강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음식을 조리한다.

메로찜



전복로



순한에 좋다고 잘 알려진 표고버섯에 오미자 소스를 곁들인 표고선은 은은한 표고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울릉도 명이를 3년이상 저온 숙성시켜 조리한 명이 주먹밥은 웰빙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명이의 달콤한 맛과 잡곡밥의 쫀득쫀득한 식감도 균침을 절로 돌게한다.

피로회복에 좋다고 잘 알려진 둥굴레를 우려낸 물로 밥은 안치고, 2년 이상 숙성시킨 된장찌개와 밑반찬으로 조기구이, 삼색나물, 가지, 깻잎 등 채식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대표는 이렇

게 밥을 안치는 물 또한 지친 현대인들에 대한 섭세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끝은 아니다.

후식, 그 맛이 빼어나다. 백련초로 만 들어진 양갱과 복분자 감식초로 대미를 장식한다.

양갱은 너무 달지 않은 적당한 맛으로 오묘한 맛을 자아내고, 복분자감식초 역시 맛이 강하지 않으며 산뜻하고 깔끔한 맛을 지녀 여운이 남는다.

뜰안채 우운주 대표는 음식의 맛은 정성이라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음식이 우대

표 손을 거쳐간다. 또한 계절에 어울리는 식자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우대표를 비롯해 함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 또한 대구한의대에서 약선을 전문으로 공부를 했다.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과일발효액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계절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모든 음식에 기본적인 약재는 평한약재(하수오, 길경, 황정 등)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김원현 기자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www. **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

공기업·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검토기관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컨설팅 등록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2013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안동 유치 확정

1천 800만 생활체육인의 축제인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안동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안동시는 8월 28일 포항에서 열린 경상북도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포항, 구미와 경쟁을 벌여 최종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01년 제1회 제주 대회를 시작으로 2013년 경북 대회는 13회째로 열린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시에선 역대최고의 개·폐회식 준비와 각종 문화 행사를 만들어지게 추진할 것"이라며 "도내 북부지역 종목별 개최지에서도 체육과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축전기간 동안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알차게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동 2012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창작지원 사업 협약식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안동영상미디어센터(센터장 김현기)가 주관하는 2012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창작지원사업의 협약식과 설명회가 8월 28일 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창작지원사업 선정자는 아이디어 창의성·사업화 가능성, 지역개발효과, 사업화 준비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우수 콘텐츠사업은 박은주씨의 '황태자의 하루(가제) 프로젝트', 강동주씨의 '安冬愛가자(축제명가칭)', 이미나씨의 '영상스토리를 융합한 K-월드뮤직 공연제작', 남정순씨의 'K-tour(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투어)', 최혜란씨의 '스토리텔링 힐링 투어 서비스 사업'이다. 김현기 센터장은 '이번 창작지원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밭굴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과 풍기인삼 홍보를 위한 인삼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4건의 조례안과 시립양로원 만수촌 증축공사 외 2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 처리 할 계획이다.



상주시 수상레저스포츠 메카로 부상

지난 6월 16일 300여명의 녹색자전거열차 투어단을 직접 아끌고 상주를 방문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8월 25일 수상레저 봄 조성을 위해 곽영진 제1차관이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일원 낙동강을 방문해 카누 및 요트체험을 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한 '강바람 타고 요트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주 낙동강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상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화부는 그동안 바라보던 강에서 '활용하고 즐기는 강'으로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수상레저활동 참여여건 마련으로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일원에서 요트와 카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만복 상주시 부시장은 '요트나 카누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무동력 수상레저시설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전국 최고의 지역특산물 홍보사절

영양군은 지난 8월 24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제16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를 1,800여명의 군민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1984년부터 시작해 16회를 맞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특산물아가씨 선발대회로 100여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예심을 거쳐 본선에는 30명이 참가했다.

본선 참가자 30명은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영양군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수련원에서 합숙체험을 마치고 이날 본선대회를 갖게 되었다. 이 날 무대에는 30명의 영양고추 홍보사절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개인기와 조별 필살기 등을 선보이는 등 열띤 경쟁을 하였으며, 진 금잔디, 선 김희진, 미 차경윤, 매꼬미 최은경, 달꼬미 김보민, 빛깔찬 장혜원, 삼미 김민지 등 7명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고추가격 상승으로 억대 농가들이 늘어났으며, 아울러 규격화된 가공제품 생산을 통해 영양고추가 해외시장을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에 선발된 영양고추아가씨들이 영양고추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egu 2012

제93회 전국체육대회

The 93rd National Sports Festival

2012.10.11-10.17

맘·몸·뜻 달구벌에서 하나로!

주최 대한체육회
Korean Olympic Committee

주관 Colorful
DAEGU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S OF EDUCATION

대구광역시체육회
DAEGU SPORTS COUNCIL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울진군

제36회 성류문화제

제10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2012. 10. 5(금) ▶ 10. 7(일)

엑스포공원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에
왜(why)! 나는 꼭 간다!

1. 천년의 향이 담긴 울진금강송 송이를 엄청 싸게 먹을 수 있다.
2. 믿을 수 있는 울진금강송 송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3. 울진금강송 송이를 산지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다.
4. 행사장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양수로 많다.
5. 울진군에는 갖가지 구경거리가 빵빵하게 많다.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울진금강송 송이 대박 축제!



주최



주관



울진문화원



울진군산림조합